

정주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 방과후 학교 현장 방문 -

“교육은 학교 중심이 되어야”

지금 연구학교 수준이니까 점차 여러 문제 해결해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금순 교사가 여러 얘기 했는데 대개 예상했던 말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말을 듣고 얻은 것은 연구학교를 만든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데 대체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는 분석해 봐야겠지만 공감대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가야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 못 해결하면 오래 못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 중에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것이 기분 좋고 이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말씀은 고무적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교육감하시는 교육혁신위원장, 서울시 교육감, 교육장, 교장선생님, 국장님 등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고 될 것 같아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바깥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가급적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중구조, 이중성이라, 겉과 속이 달라 사람

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학교 밖에서 배우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교육, 공교육 하는데 거기부터 출발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가 관리하고 나아가 사교육비 그것도 학부모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사교육비로 교육수요를 충족하면 대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회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부터 불공정하게 됩니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질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하고 사교육과 같은 교육기회를 넓히고 거기에 안 되면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해서 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바깥의 사교육 등급도 천차만별이고 학부모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하는 수준의 교육을 전 국민이 접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니 선생님들도 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숫자도 모자라고 학교관리, 학생관리, 학습관리, 학습지도를 해야 하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얘기를 하기를 비공식적으로 오전수업을 공교육을 끝내주라고 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오전수업으로 끝내주고 그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오후에 과외수업에 참가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수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고 의무적인 학습시수에 교과 과정이 부족한데 교과 과정을 대폭 줄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과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가져야 할 사회교육, 시민교육, 기초적인 기본역량 외에 진학이나 더 높은 성취를 위한 것은 오후에 다른 코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어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줄여주는 것, 선생님의 일을 줄이고 교사의 물질적 관리는 꼭 교사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시설 관리하는 사람을 보충하고 선생님은 학생 관리하고 학교 안에서 외부강사가 학습하더라도 그 역시 선생님이 학생관리 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모자라서 안 되면 강사 하러 온 사람한테 짜게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 정부가 다 해서 학부모의 부담은 학원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교실, 학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세를 안냅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같은 품질이라면 훨씬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교수 부담을 줄여서 학생관리, 학습관리 쪽으로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면 됩니다.

이런 실습에서 꾸준히 그런 모델 개발해서 대화해 수용해 나가고, 더 다양한 학부모 참여 시키고 또 하나 지나친 욕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데 특히 도시에는 교회 아니면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 구심점인데 우리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되어야”

아이들이 학교 바깥의 환경과 연계가 안 돼 있고 교외지도는 학부모와 연계가 안 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연대가 되는 틀을 만들면 지역사회 전

체 환경을 바꾸는데 가능합니다. 성공한 모델이 없는 정책은 단언한 적 없습니다. 성공한 모델이 없는 정책을 해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차츰 토론해서 검증하고 합의되면 정책으로 채택하는데 검증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면 좋은 일입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다른 면에서 희생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교수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분석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좋은 대우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분석하기 나름이고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들도 눈치 살피면서 하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조카도 학교 선생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하도 많아서 학교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함께하고 해서 아이들이 합리적인 프로세스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어릴 때 부터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회규범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책에 나온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책하고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교육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비용 많이 들겠지만 내년 예산 짤 때 이 부분 비용 지원 할 것입니다. 한번 만들면 다음정권도 깎지 못합니다. 시범 사업을 잘해서 빠르게 확산되도록 장관, 교육감이 힘써주십시오.